

## “정치적 격랑 속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을”

제4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열려

제5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취지의 이 기도회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직전 주간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역시 첫 메시지는 이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가 전했다. 이 목사는 ‘오직 주님만이 왕 이십니다’(마태복음 2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대사가 ‘로마서’를 통과하면서 ‘근대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오셨기 때문”이라며 “고대사 ‘로마서’를 통과하면서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게 되었고,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면서 근대사, 근대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렇게 복음이 녹여진 근대사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중해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에는 그 복음이 대동강을 통해,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으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결과, 반만년 동안 우상들의 젖을 물고 살아가던 이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녹여진 젖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 마디로,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고 가장 먼저 소동이 일어난 곳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던 ‘왕궁’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대한민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정치적 격랑 속에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 분에게만 충성을 서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정치적인 본질”이라며 “교회와 정치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이태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의 과도한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 모두,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정치체제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짐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권 아래 하나가 되어지

는 정치적인 통합, 그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이 바로 선교”라고도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 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항상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세속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시요, 열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활동,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만 부르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날 두 번째 메시지는 염보연 목사(수원 한사랑교회)가 전했다.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역대하 34: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염 목사는 “역사적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곤 했다”며 설교 본문의 ‘요시야 왕’을 소개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된 요시야 왕에 대해 “좌우를 기우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직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정직은 성경이 평가하는 믿음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찾으시는 인물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다”고 했다.

염 목사는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 같지만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실제로 달려갔다는 뜻이다. 시대가 아무리 무너지고 악해도,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요시야는 거룩과 정결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회복했다. 그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단행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이었다”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외형적인 불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고 했다.

염 목사는 “특히 이 시대는 진화론, 인본주의, 뉴에이지, 공산주의 등 다양한 미혹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혼합주의와 미혹의 영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제거하는 일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요시야는 또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다. 이는 상징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며 “신앙은 중도나 중립을 추구하는 회색지대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다. 요시야는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게 했다. 중도를 자처하지 않고, 말씀의 편에 서는 것야말로, 오히려 가장 안정된 길”이라고 했다.

염 목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 거짓과 왜곡, 불의와 무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때일수록, 성도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힘을 내어 걸어가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민족 가운데, 우상은 무너져야 하고, 성소는 재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 한기총,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교회 관련 정책 등엔 적극적 의사 개진도 필요”

한기총은 이 입장문에서 “투표는 한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투표를 통해 정치활동에 자간접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



거에 열매이는 것일 뿐, 미래를 위한다면 정책 선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실현 가능성은 비교하며 결정해야 하겠지만, 교회와 관련된 정책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사 개진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과급효과가 있고, 특히 선거 때에는 반대하다가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말 바꾸기 행태를 보였던 과거를 돌아볼 때, 더욱 분명한 입장 표명은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유권

자로서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며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정당 등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지”고 했다.

이어 후보자와 정당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흐색선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경쟁하지”며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기총은 이 입장문에서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아울러 폭력했다. 우선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며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 이와 관련한 입법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교회 탄압을 규탄한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적 가치에 따라 설립된 종교학회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고 했고 “정치적 앙국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혁을 공

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표(票)만을 생각하고 말 바꾸기 행태로 국민과 기독교인을 우롱하는 진정성 없는 후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GCR “매년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 수 늘어” 》 7면

히즈쇼, ‘사랑하기 캠페인’ 실천 키트 배포 》 23면

##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 경남 교계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 공권력 횡포이자 최악 인권탄압”

(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석환 목사), (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경은 목사),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이성완), 경남마하나인장로회, 미래희망세운학부모연합 외 경남 70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최근 부산 경찰청이 세계로교회로 들어와 담임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공공연한 표적이 되고 공권력의 공격 대상이 돼왔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일부 한국교회가 민주화운동의 근거지가 돼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교회를 향한 탄압이 노골화됐고, 문재인 정부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한국교회만 꼭 찍어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기야 5월 12일 아침 8시 30분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는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의 본당 및 당회장(담임목사실)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영장에



경남기총 등 시민단체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기총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종교시설 내부까지 압수수색의 영장 내용에 적시된 내용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억지 주장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했다고 명시한 점은 성직자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사안에 비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압력적이며 비상식적인 압수 수색에 경악을 금지 못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압수수색 영장 일부 판사와 경찰에 강력 항의하는 바”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먼저 이에 대한 불법적인 사안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교회 예배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기에 평소처럼 설교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했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답 마지막에 예배 참석한 교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선거를 반드시 4월 2일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행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며 “평소

손 목사는 예전에도 예배 시간에 특정인이 방문하거나 또는 일반 학생들과 대답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마이크 이용도 5천석 대형 규모의 시설이기에 당연한 상식과 기본적 사안도 알지 못하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손 목사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뤘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3월 9일 설교 시간 그 때까지는 분명 중도 보수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일부 보도에서도 언급됐고, 손 목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억지 주장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했다고 명시한 점은 성직자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이는 특정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성직자의 선한 양심과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해 ‘4월 2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일예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하잖아요?’라고 설교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명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인 아닐뿐더러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교회 시설 그것도 담임목사실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흙역사이며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LX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LX Z:IN

## 예장 고신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규탄... 종교탄압”

### “정교분리·표현의 자유 명백히 위반한 엄중 사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정태진 목사)가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고신총회는 부산 세계로교회가 속한 교단이다.

총회는 “2025년 5월 12일 아침 8시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 경찰들이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의(손현보) 담임목사 집무실과 본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담임목사의 휴대폰과 읽고 있는 책들과 문서를 압수해 갔다”고 했다.

이들은 “3월 16일 주일 오전예배 시간에 방문했던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후보 입장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짧은 대답을 사전선거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총회는 “예배장소에 대한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이 영장을 가진 경찰의 기습적인 예배장소 난입과 압수수

색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고신총회를 견전한 기독교로 인정하고 또한 고신총회의 각처 교회를 예배장소로 인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탄압으로 간주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가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교계도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가 목회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기독교 탄압 의도”...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 고신서 첫 규탄 목소리

고애연 성명

“분노와 참담함 금할 수 없어”

경찰이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 목사가 속한 교단인 예장 고신 측에서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애연국지도자연합(공동대표 이성구, 고명길 목사, 이하 고애연) 700명 회원 일동은 15일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지난 2025년 5월 12일 부산경찰청 경찰들이 세계로교회 본당과 당회장실에 들어다쳐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접하며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유례없이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고애연은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건이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코로나 예배 금지 사건을 거친 이후 정권교체 움직임을 틀타 본격적으로 기독교 탄압에 나서려는 의도가 담긴 절체 절명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건이 전혀 수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영장 발부한 법원, 이를

집행한 경찰청이 모두 편향된 시각에 사로잡힌 기관들임을 스스로 증명한 참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건이 군사정권 하에서도 발생하지 않았고, 천주교나 불교기관에 대해서는 저질러지지 않은 한국 종교 역사상 최초의 공권력을 동원한 만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이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고, 북한 중국 등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있다”며 “이미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접어들고 있음을 공포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여 교회의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영장 발부한 법원, 이를



최근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제2회 고애연 시국현안 세미나 및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코람데오닷컴 제공



# “한국 선교 140주년… 개혁신앙 영성 회복해야”

## 기독교학술원, ‘선교 140주년, 기독교의 의미’ 주제 영성학술포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선교 140주년, 기독교의 의미’라는 주제로 제48회 영성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사를 전한 김영한 박사는 “한국개혁교회는 기독교영성이 소진하고 있는 오늘날 포스트모던시대의 서구 신학을 통하여 개혁신앙적 영성을 새롭게 복권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식은 정보에 그칠 수 있으나 영성은 자식에 생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준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날 그의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재현하고 생동화하신다. 140년 역사의 한국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된다. 한국개혁교회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가 ‘종교 토양’ △곽혜원 교수(한세대)가 ‘신학적 토양’ △곽혜원 교수(경기대)가 ‘문명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로버트 월슨 슈펠트 중심의 개항기 대미외교와 기독교선교에 대해

박명수 교수는 “1866년 제너럴 서만호 사건부터 1880년 타이건도르가의 귀

향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슈펠트(Robert Wilson Shufeldt, 1822-1895 미국 해군 제독·외교관)의 활동을 통해 조미조약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슈펠트는 미국의 외교활동을 문명사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둘째로 슈펠트의 대 조선 활동에 있어서 1867년 와주세트호를 타고 조선에 왔던 사건과 1880년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조선에서 활동한 내용을 서로 연관되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력 사용의 문제로 중국의 이홍장을 동원해서 무력이 아닌 설득으로 조미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넷째로 나가사끼에서 슈펠트의 활동이 결국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다섯째로 슈펠트는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조선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고, 결국 조선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종은 바로 이것을 미국에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슈펠트만큼 조선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사랑은 고종의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 기독교, 약자자기 비움침된 휴머니즘의 윤리 회복해야”

이관표 교수는 “종교사학적 유대교 기



기독교학술원 제48회 영성학술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기독교학술원



(왼쪽부터) 김윤태 교수, 박명수 교수, 김영한 박사, 이관표 교수, 곽혜원 교수, 이은선 교수. ©기독교학술원

독교 비판으로부터 약자의 윤리를 발견했고, 나체의 기독교 비판을 통해 기독교의 자기 비움의 윤리를 발견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독교와 휴머니즘 비판을 다루면서 거기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휴머니즘 논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위기다. 그러나 이 기독

교가 신학적 의미 세 가지 즉 약자의 윤리, 자기 비움의 윤리 그리고 참된 휴머니즘을 잊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면 한국기독교는 그 교세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율러 “그 어느 때보다 약자의 윤리, 자기 비움의 윤리 그리고 참된 휴머니즘이 필요한 이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에게 진정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직제사역 참여 보장해야”

곽혜원 교수는 “한국교회의 성장은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며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은 점차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했다.

곽 교수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권리와 위상이 비약적으로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며 “양성평등 문제는 한국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 중 60~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 결정 구조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교단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나 장로 임직은 제한적이며, 여성 사역자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곽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여성들의 헌신을 막고 있다”며 “지적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여성들이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꾸짖고, 복음 사역에 있어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을 대우하셨다”며 “한국교회 역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고, 직제와 사역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곽 교수는 “오늘날 일부 젠더 페미니즘 세력이 교회 안의 여성 차별을 비판하며 여성 신도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성 스스로 자신

의 역할과 권리를 축소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는 데 있다”며 교회가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여성 인권 회복은 남성과의 동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교회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들이 소신 있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에서 ‘교회가 살고 죽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윤태 교수(前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는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죽대가 옮겨져 왔음을 볼 수 있다”며 “하나님의 죽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선택의 목적에 불순종하면 옮겨진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죽대는 옮겨져 왔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지만, 불순종하는 교회는 물락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곧 선택을 받은 교회이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교회도 이처럼 선택의 축복을 받은 교회를 찾기 어려울 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누려왔다”며 “이제 이 선택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유지하든지 자만에 빠져 침체 하든지, 한국교회는 선택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당신 곁에서 새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EKYUNG

## ‘FAOBMB 2025’ 국제학술대회 개최한다

세계 생명과학 석학들 집결…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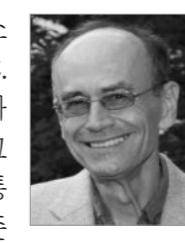
세계 30여 개국 생명과학 석학들이 참여하는 ‘제31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학술대회(FAOBMB 2025)’가 오는 2025년 5월 20일부터 23일 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강봉규)와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 연맹(FAOBMB, 회장 김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생명과학, 혁신의 물결이 밀려오다(Revolution in Biomedical Science: RIBS)’를 주제로 진행된다.

FAOBMB 2025에는 생명과학, 의학,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약 4,0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규모와 수준 면에서 국내 최대급 생명과학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인 스탠포드대 토마스 쉬트호프(Thomas C. Südhof) 교수(사진)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그는 신경세포 간 소통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



에서 밝혀내며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서울대 김빛내리 석좌교수도 ‘RNA 안정성 조절: 바이러스와 RNA 치료제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하버드대 마리아 헤이기스, 데이비드 류 교수, 교토대 가츠토시 모리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신경과학, 유전자 편집, 미토콘드리아 대사, 단백질 구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개의 기조강연을 포함해 총 20개 분야의 심포지엄이 마련되며, 유럽생화학회연맹(FEBS) 강연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주제는 바이러스학, 고등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상황이다.

‘아워 하이어로즈: We Remember’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 프로젝트는 그날의 희생을 오늘의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민간 보훈의 새로운 운동이기도 하다.

심정은 이사장은 “참전유공자의 오늘을 지키는 일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민간 보훈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모두가 보훈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지

않세포 사멸, CRISPR 유전자 개위, 신약 개발, 면역학, 마이크로바이옴 등이다.

산업 전시회와 함께 젊은 과학자 프로그램(Young Scientist Program), 국제공동 심포지엄(한-호주, 한-중국, 한-일본, 한-필리핀 등), 10개 이상의 여성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된다. 젊은 연구자들과 글로벌 과학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김준 교수(한동대 석좌교수·고려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김아람 한동대 교수 등 200여 명의 국내 과학자와 20여 개국의 FAOBMB 임원진으로 구성되었다.

김준 조직위원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생명과학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생명과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 생명과학 혁신의 물결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아워 하이어로즈’ 민관 협력 프로젝트 본격 가동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민간과 공공의 손을 맞잡고 시작된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최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을 위한 ‘아워 하이어로즈(Our Heroes)’ 프로젝트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의 보훈제도로는 충분히 달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민간이 손을 내민 첫걸음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생존 참전유공자들에게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6·25 참전유공자들은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고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남가주 교회 및 단체들 장학생 모집

### ◆ANC온누리 장학생 모집

2006년부터 시작된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장학회는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ANC 장학회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을 장려하고 장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ANC 장학금 신청은 <http://ancsf.us>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마감은 6월 15일(오후 11시 59분 PST)이다.

지원자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미국주소와 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목회자 자녀 또는 선교사 자녀에게는 가산점이 있다.

지원서는 ANCSFUS 웹사이트에서 구글 폼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성적 증명서(주천서(지도교수 및/또는 목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개인 간증(500단어) 등을 모두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 발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있으며, 수여식은 8월.

지원 자격: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생(정규 학생),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학생(정규 학생) 문의: 818 834 7000

### ◆제26기 충현장학생 모집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장학부에서 2025-2026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1. 일반 장학금: 기독교 신앙이 돋보이며 교회와 사회에 공헌한 유능한 인재 양성. 2. 박태용 장로 장학금: 초급 대학 재학 이상,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 3. 정상우 목사 장학금: 선교사 자녀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육성

지원 자격: ▲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출석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신학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이 허가된 자(박태용장로 장학금: 2년제 초급대학 재학생 포함) ▲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제출서류: ▲ 프로필 사진(현색 배경의 최신 사진) ▲ 학업 성적 증명서 사본(PDF) ▲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PDF) ▲ 목사/장로 추천서(PDF)

▲ 두 개의 에세이: (1) 신앙 간증: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 (2) 비전 선언문: 그리스도와 가 삶의 목표와 목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계획과 비전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마감: 2025년 5월 31일(토)

장학금 수여 예정일: 2025년 7월 27일(주일)

문의: [scholarship@choonghyun.org](mailto:scholarship@choonghyun.org)

###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장학생 모집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임학준 목사) 장학위원회가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학상을 모집한다.

지원자 또는 부모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가을 학기 입학이 확정된 고교 졸업반이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서류 접수 기간은 6월 20일까

지이다.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lagunachurch.com/](http://lagunachurch.com/)) 문의: 949-380-7777 [www.lagunakumc@gmail.com](mailto:www.lagunakumc@gmail.com)

### ◆선한정지기교회 장학생 모집

선한정지기교회(송병주 목사)는 6월 1일까지 2025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12학년(대학 진학 예상자),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교회 웹사이트 (<https://gsch.org/>)를 통해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오테페(OTEFE) 재단 장학생 모집

오테페(OTEFE) 재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우수한인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대학(원) 재학생 또는 올해 입학 예정자이며 마감은 5월 23일이다.

이 장학금은 미국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국계 미국인 학생, 재외동포 학생, 또는 한국 밭전에 헌신하는 비한국계 학생이 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문의: 웹사이트(<https://otefe.org/>) 참고.

### ◆PCB 은행 장학생 모집 5/30 마감

PCB 은행은 5월 30일(금) 오후 5시(대평양 표준시)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금액은 학생 1인당 \$3,000이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부모 2023년 혹은 2024년 소득세 신고서

-추천서: 추천인이 직접 작성하여 [pcbss@mypcbbank.com](mailto:pcbss@mypcbbank.com)으로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목은 “장학생 [성함]”으로 하여 수신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에세이: “지원자의 개인 상황: 대학에 대한 목표;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서가 취소된다.

1. 미국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2.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생

3. 4.0 기준 최소 비가중 누적 GPA 3.0을 받았거나 GED를 취득했어야 한다.

4. 금융 지식 교육과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 카운티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하며 HUD 2024 소득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1. 캘리포니아 -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2. 뉴욕 - 퀸즈 카운티

3. 뉴저지 - 베건 카운티

4. 텍사스 - 댈러스 카운티

5. 조지아 - 케넷 카운티

### ◆Daniel G Calugar Foundation Merit Scholarship

이 재단은 매 학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입학하는 뛰어난 신입생 10명에게 각각 1만 달러의 장학

금을 제공하는 학업 성취 우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 동기, 진로 목표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이 지원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SAT 1500 점 이상 또는 ACT 34점 이상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시험 접수 사본을 제출해야 함) 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목표 목적, 그리고 지원자의 대학 경험이 그 목표 달성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195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은 45%였으며, 2007년에도 45%였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GDP 대비 120%였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부채의 GDP 대비 비율과 2007년부터 이 비율이 증가할 추세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비율과 지난 15년간의 주세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을 작성해 재단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https://dancalugarfoundation.org/>

org/

### ◆호프 장학금

뱅크오브호프는 은행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며, 호프장학 재단을 통해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학생당 \$2,500 이 수여되며, 각 수상자는 하나의 상만 받을 수 있다. 접수마감은 2025년 6월 6일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이다.

신청은 뱅크 오프 호프 웹사이트(<https://www.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부모/보호자의 2024년 소득세 신고서, ▲추천서: 추천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hope\\_scholarship@bankofhope.com](mailto:hope_scholarship@bankofhope.com)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 ▲학교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비공식/공식 성적 증명서(PDF 파일로 스캔), ▲에세이(PDF 형식)를 제출해야 한다.

에세이는 아래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해 약 500 단어 분량으로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제 1: 귀하가 경험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에서 겪기 어려웠던 사건을 설명해십시오. 이를 어떻게 극복 했습니까?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 했습니까?

주제 2: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준 삶의 영역을 설명하는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지원자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거주자, 또는 Freely Associated States 시민권자

2025년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인가받은 2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신입 등록할 학생

4.0 척도에서 최소 가중치가 없는 GPA가 3.0이상이거나 GED를 취득한 학생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증명(자세한 내용은 Bank of Hope 장학금 소득 제한을 참조)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에 대한인국민회, 화랑청소년재단, 그리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가 함께 Angelus Rosedale Cemetery에서 독립 애국자 묘지 방문 및 보존 행사를 가졌다.

남가주교협 관계자는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환경 속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자들의 묘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총 31분이며,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과 삶을 바친 귀하신 분들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학생들이 앞으로 이 묘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비석을 닦고 관리하겠다는 결단을 했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다. 이 결심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소중한 사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 2025 미주 고신 목회자 컨퍼런스 “오늘날 예배를 다시 생각한다”



미주 고신 목회자들을 위한  
‘고신 목회자 컨퍼런스 2025’

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위  
싱턴주 웨더레이웨이 제일장로

교회(담임 이민규 목사)에서

열린다.

재미고신 신학위원회(위원장 이일근 목사) 주

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늘날 예배를 다

시 생각한다(Rethinking Worship Today)”라는

주제로 예배의 본질과 현대 교회 속 예배의 방향

성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사로는 이성호 교수(고려신학대학원)와 안

김민선 기자

## 연세대학교 개교 140주년 기념 미주 조찬기도회 성료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문두진 목사 설교,  
‘예수님을 따르는 삶’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목사는 “여울함을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며 강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주

연세조찬기도회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미주 내 동문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와 나눔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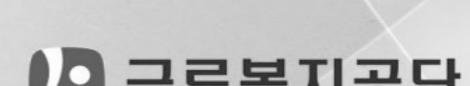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 GCR, “매년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 수 늘어”

“무슬림 국가에서 강력한 영적 객성 일어나, 위험 무릅쓰고 개종”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 Global Christian Relief)는 “최근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 증가”라며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약 6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현상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종자 상당수가 박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해 신앙을 비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와 선교 단체의 보고를 통해 대략적인 추정치를 확 인할 수 있다.

저명한 무슬림 지도자인 세이크 아흐마드 알 카타니는 2001년 알자자라와의 TV 인터뷰에서 “매시간 667명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만 하루 1만 6천 명, 연간 600만

명이 개종한다는 주장으로, 이 수치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 실제로 많은 개종이 일어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무슬림의 개종은 극심한 종교적 압력, 엄격한 이슬람 율법, 박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중동에서 중앙아시아, 그 너머의 무슬림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복음을 찾게 된다.

무슬림 개종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단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500만 명 이상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에서는

1979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500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에는 알려진 기독교인이 17명뿐이었으나, 현재 10,000명이 넘는다. 이라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5,000명이 넘



성경공부 모임에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GCR

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많은 교회가 바그다드와 쿠르디스탄에 문을 열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 국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 종종 가족과 사회의 거부, 위협 또는 폭력, 장역을 포함한 법적 처벌, 심지어 배교 행위로 간주해 사형에 처하는 등 생명의 위

험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주요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만남이 있다. 많은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묘사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며, 더 배우고 싶은 깊은 열망을 불러일

으킨다.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어디에서든 무슬림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조언하셨다고 자주 전한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라는 요엘 2장 28절의 예언과 일치한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

둘째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종교적 폭력과 극단주의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일부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혹 행위에 환멸을 느꼈다. 이로 인해 일부는 다른 길,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사랑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셋째, 성경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성경, 기독교

서적, 영상물을 배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집트에서는 아랍어 신약 성경이 수십만 부 배포되었다.

넷째, 교회의 역할 때문이다. 교회는 무슬림 개종자들을 위한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도에서는 교회와 복음주의 단체들이 매년 수만 명의 무슬림이 그 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한다.

다섯째, 기독교 사랑의 증거 때문이다. 기독교 이웃들의 친절, 연민,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흔든다. 많은 경우,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신학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다.

이처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신자들이 지지와 기도로 응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GCR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해 주시고, 그들의 증거가 담대해지도록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 전도편지

### 매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틈새전도 훈련을 합시다

“살아 있는 복음은 교회 담장 밖에서 더욱 진하게 흘러”

지난 2월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 교육원(교육원장 김윤규 목사, 직전 직목협 상임대표) 주관으로, 직장선교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직장선교 최고위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선교의 전문성과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직장선교 권위자들이 참여한 학술대회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강의 주제는 직장안목회자신학생을 위한 365일 귀출라프 틈새전도의 이론 및 사례, 실습(역할극)입니다. 365일 틈새전도는 처음에는 매일 한 사람에게 틈새전도 훈련을 하고, 나중에는 매일 성령에 의뢰하고 훈련하면 365일 매일전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전도학과 틈새전도(Niche Evangelism)의 관계

틈새전도는 전도학의 한 분야로, 특별한 순간과 장소에서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하는 실천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정규적인 전도 활동 외에, 일상 속 ‘틈’을 활용한 복음 선포로서, 개인 전도와 전략적 전도의 교차점에 위치한 사역입니다.

2. 365일 틈새전도의 이론과 실제

1) 틈새전도 정의와 신학적 의미

‘365일 틈새전도’는 미시오 데이(Mission Day, 하나님의 선교)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모든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골 3:17).

#### 2) 실천의 핵심 요소

\*일상 속 전도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지 않고, 출퇴근길, 지하철, 병원, 직장, 카페, 시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도의 생활화: 전도를 이벤트로 보지 않고, 습관이자 일상의 일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적용: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틈새 시간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 3) 언어적 정의

\*헬라어: εὐαγγελίω 좋은 소식을 능동적으로 선포함

\*영어: 365-Day Niche Evangelism 매일 틈새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지속적 전도 방식

3. 예수님이 전도 방식과 365일 귀출라프 틈새전도의 연결점



김윤규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직장선교 최고위과정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직선문 교육원

필자가 창안한 ‘365일 귀출라프 틈새전도’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공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맞춤형 전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요 4:7), 여리고 길가에서 눈을 간절히 끄고자 와치던 바디매오(마 10장), 나무에 올라 주저하던 삽개오(눅 19장)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요 3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들판과 물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동 전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들판과 물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

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직장, 지하철, 항구, 건설 현장 등에서 전도하는 틈새전도 방식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그 순간, 그 사람, 그 상황을 온전히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와 마을, 직장과 병원, 시장과 공항 속에서 그런 복음의 향기가 다시 피어나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짧고 강력한 메시지로 전도 하셨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땅이나라”(요 6:35)

틈새전도에서는 긴 설교가 아니라 3분 이내의 짧은 전도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 14:6) 즉,

‘틈새’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창문’입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우리가, 문득 열린 그 창문 너머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365일 틈새전도’는 단지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요, 존재의 방식입니다. 매일을 복음의 통로로 살아내는 사람들, 자신의 일터와 생활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아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숨결입니다. 살아 있는 복음은 교회 담장 밖에서 더욱 진하게 흘러나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틈은 무엇인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조성해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루의 삶 속에서 복음을 숨처럼 전하는 사람입니다.”

#### ◆김윤규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회 충북지방회장 소태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 평택외항국제선교교회 대표 선교사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지도목사선교학 박사(Ph.D)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 주

## 월 그래함 “청년들이 점점 더 신앙과 연결에 목말라해”

고 벌리 그래함 목사의 손자인 월 그래함(Will Graham) 목사가 최근 미국의 한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점점 더 신앙(faith)과 연결(connection)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빌리그래함 복음주의협회(BGEA) 부대표이기도 한 월 그래함 목사는 이 방송에서 게스트 호스트인 로즈 테넌트가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동의했다.

그는 켄터키주 월모어에 소재한 애즈베리 대학교, 앤리버마주 오번에 소재한 오번 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부흥 운동을 언급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 학교들 중 일부는

기독교 학교도 아니다”라며 “대부분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학교의 독특한 점이다. 이 학교에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전역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있으며, 이런 일

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테넌트는 지난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학교 풋볼팀 선수들이 인도한 특별 캠퍼스 예배에서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회상했다. 그녀는 또한 성경 판매량, 특히 청년들 사이에

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서 조사업체 서캐나 북스캔(Circana BookScan)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2023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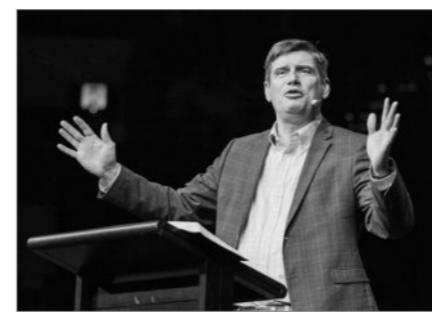
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그래함 목사는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이다. 청년들이 성경을 탐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진리에 목말라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월 그래함 목사. ©BGEA

이라고 말했다. 당신과 저를 비롯한 다른 세대는 그렇지 않았던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며 “이것은 이 세대에게는 매우 새로운 일이며, 마침내 그들이 육체적, 인간적 관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에 동의하며 “청년들의 영혼에는 큰 갈증이 있다. 이전에는 그

런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고 있다. 영적으로 갈증이 많고, 진정한 관계를 찾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

미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 살 애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의도된 것이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

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바나 리서치가 발표한 ‘2025 교회 현황’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2019년과 2025년 사이 Z세대 남성의 경우 15% 포인트,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19%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미경 기자

## 美흑인 대형교회, 학자금 대출 상환에 1억 8천만 원 기부



하워드-존 웨슬리 담임목사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YouTube/Alfred Street Baptist Church

미국의 한 흑인 대형교회가 대학 졸업생 11명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13만2천 여달러(약 1억8천6백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180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만여명의 신자를 보유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는 세인트 오거스틴 대학교(SAU) 졸업생 11명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기 위해 13만2천4백69달러를 기부했다.

SAU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은 5월 3일(이하 현지시간) 졸업식 전 전달되었으며,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대표들이 졸업식에 참석했다.

SAU 임시 총장 마커스 H. 버제스는 보도자료에서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은혜로운 행위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기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믿음과 협력의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SAU 전체 구성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부는 신앙과 협력이 어떻

게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는 우리의 희망을 되살리고 SAU의 밝은 미래를 더욱 확고히 한다”라고 했다.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 담임목사인 하워드-존 웨슬리 목사는 보도자

료에서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모습”이라며 “우리는 학생들과 HBCU,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졸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기부는 SAU가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올해 초, 남부대학협회(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산하 대학위원회는 SAU의 인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SAU는 이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SAU는 지난 3월 중재 절차가 진행되

는 동안에도 대학이 계속 운영될 것이며 5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SAU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7천만 달러 규모의 른을 받았고, 그달 말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월 발표에서 소피 김슨 이사는 “우리

가 확보한 기금은 지금 입학하는 학생

들과 미래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한

다”라며 “SAU는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

치지 않고, 미래 펠킨스의 번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 미국토안보부, 국내 이민자 검거 도울 주방위군 2만 명 요청

### 국경배치 병력과 별개… 국방부, 이례적 요청 검토 착수

미국토안보부가 전국의 이민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2만 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요청했으며,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이례적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트리샤 맥로풀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맥로풀린 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범죄 불법 체류자를 체포·추방하라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수행에 도움을 줄 부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국경에 배치된 군대와 달리 이 주방위군 병력은 각 주에서 파견돼 내륙 지역의 주방 작전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주 방위군 병력의 활용 방법은 주지사의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시 코미테이스’에 따라 연방 명령에 따른 군대는 국내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지만 주 통제 아래 있는 병력은 국내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다.

주방위군 2만 명이 추가되면 이민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총 2만여 명의 직원을 3

개 부서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 추방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 ‘단속 및 부방작전국’에 약 6000명의 법 집행관을 포함해 약 7700명의 직원이 있다.

이런 요청이 왜 주정부들이 아닌 국방부에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주 및 연방 명령에 따라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국경과 인접한 새로 군사화된 좁은 지역에서 마주치는 이주민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이러한 2만 명의 주방위군 병력 요청은 뉴욕 타임스(NYT)가 처음 보도했다.

유세진 기자

## 미나토대사 “올해 하반기 유럽 주둔 미군 감축, 6월 말 논의할 것”

매슈 휘테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현지 시간) 올해 하반기 나토 동맹국, 유럽 국가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이 방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국

내총생산(GDP) 대비 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NBC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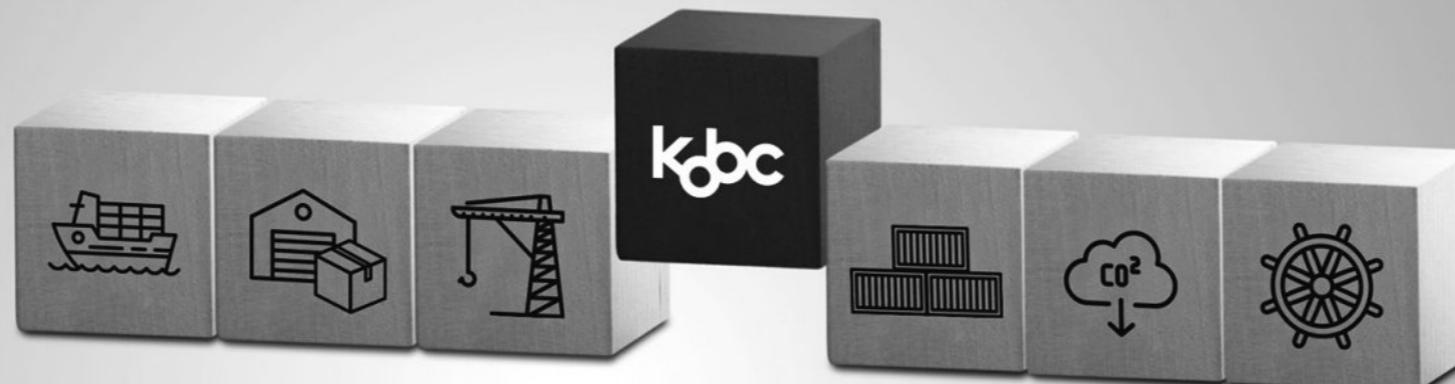
리들이 동유럽에서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6명의 미군 및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 등에 배치된 2만 명 중 1만 명을 철수하는 방안이다.

김예진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riorization  
of a system

## [ 에너지의 무한공식 ]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 OLSON

#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

# 통일부,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 촉구 위해 국제사회와 릴레이 협의

김영호 장관, 유엔과 국제기구 및 의회 인사들과 연쇄 화상회의… “억류 문제는 인류 보편의 과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숙,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는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RFBA),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3월 유엔 인권기구 사회 산하 WGAD가 세 선교사의 억류를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한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북한의 억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중대한 진전이며, 유엔 문서에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

이 명시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해당 결정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통일부는 억류 선교사를 포함해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장관 직속 ‘남북자대책 팀’을 신설했다”며 “작년 10월에는 한미일 고위급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공관을 통해 국제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유엔 인권기구 사회 산하 WGAD의 한나 유드키우스카 의장과 화상회의 중인 모습. ©통일부

회의 북한 인권 관련 동향을 직접 보고받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화상회의에서는 IRFBA 의장인 로

발표 등을 제안했다. 또한 “5월 15일 열리는 IRFBA 정례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고, 통일부와의 협력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하크 의장은 과거 체코 공산주의 정권 시절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석방된 하벨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연대하면 대한민국의 억류 선교사들도 반드시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RFBA가 바티칸과의 협력을 통해 쿠바 종교인 석방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바티칸 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회의에는 WGAD의 가나 유드 키브스카(Ganna Yudkivska) 의장이 참석해,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말 유엔 인권기구 사회 및 종회에 보고하며 북한 인권의 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 및 유엔 회원국들

## 국제사회 연대로 북한 인권 개선 모색

통일부,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일부는 5월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공동으로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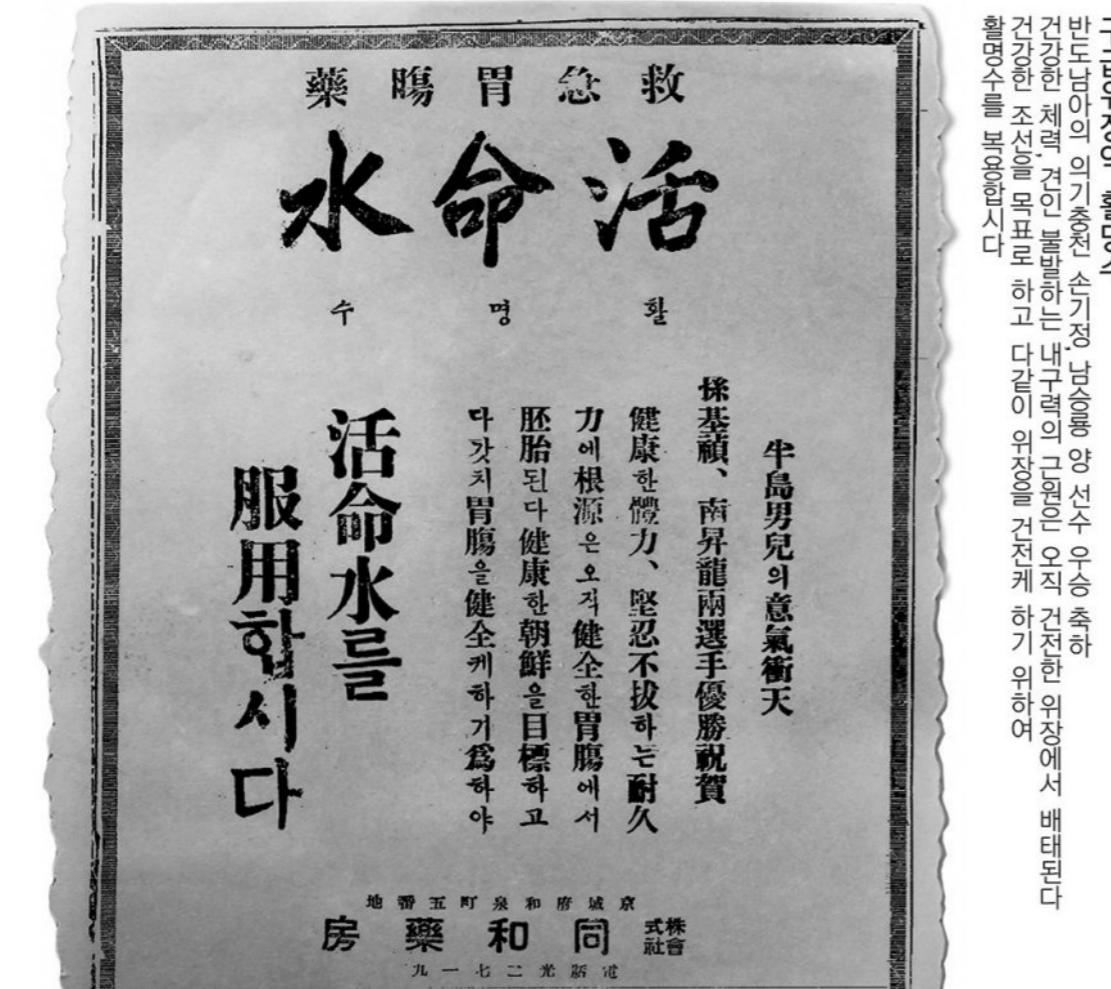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을 파병함에 따라 젊은 군인들이 전장에 내몰리는 현실과 그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용원 국회의원과 계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의 축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ICC) 소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 및 지역 관점에

서 본 북한 인권: 국제책임과 보편규범 질서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며, 이산화 고려 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은 “북한군 파병과 심화되는 인권 침해: 전장에서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남성우 남북경제연구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세 번째 세션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및 생존권 실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원재천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공약 발표 “현직 대통령엔 적용 안 돼”

헌법 부칙 따라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명시

개헌 시점은 2026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도, 관련 헌법 조항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더 분명

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정권을 거론하며 “친위 군사부대나 국가권력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직무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대선이 치러지면 시기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과 지

원회 인권인도분과 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이번 회의는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 ‘Uni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회복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노력

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여미니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대통령직을 개인적 영예나 권력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주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편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제안했다. 박용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전격 탈당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 힘을 공식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탈당 소식을 전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당 밖에서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힘을 떠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인가 불과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이유도,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국가 안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 대부분을 국민의 힘과 함께해 왔다며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당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당 밖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헌신하는 것”이라며 탈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힘 당원들에게는 “더욱

뜨겁게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을 끌어안아 달리”고 당부하며,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하나로 뭉쳐야만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면서,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열정을 함께 나눴던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반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등 경제공약... "대한민국 경제 족쇄 풀겠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화,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 포괄적 경제정책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전방위적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핵심으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노동 유연화, 메가시티 조성, GTX 확장, 미래 기술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풀겠다"며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혁파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이 규제에 벽을 잡히지 않도록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

다"며, 이를 통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가 자유롭게 일하고 쉴 수 있어 경제가 비상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으로 삼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과,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GTX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

였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4개 광역권

으로 확대해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GTX 설계의 주역은 바로 나 김문수다.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F 노선을 착공하겠다. 경기지사 시절 시작한 GTX를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이른바 '3H' 미래 기술 분야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2,000 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득 공제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예산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김 후보의 정책에 힘을 실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은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규제 권한을 줄여 국민 모두가 뛰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세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공약의 문제"라며, "세수를 늘리려면 세금을 낮추거나 규제를 철폐하거나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 내국인 건보 자격 감소 속 외국인 가입자 급증

저출생 영향으로 내국인 감소  
중국인 2만6000명 늘어,  
상호주의 적용 논의 본격화

저출생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감소한 반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만 6000명 이상 증가해, 내국인 감소 추세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감소세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에야 소폭 반등 했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등 저출생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129명에서 2023년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자는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급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도 늘었다. 2020년 11만1230명이었던 외국인 상실자는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상호주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호주의의 적용 시, 출신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 유무 및 가입 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적으로 유입된 인력에 대한 의료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위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최근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적

답고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 원, 금액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상호주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호주의의 적용 시, 출신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 유무 및 가입 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적으로 유입된 인력에 대한 의료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위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최근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적

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 국가 중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 갈등, 관계 부정 외국인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주의의 적용은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에서의 차별은 인권 문제 및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요건 강화, 본인부담금 가산,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나래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3년 만의 협상도 '입장차'만 확인

양측, 포로 1000명 교환 합의  
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  
휴전 문서화엔 의견 접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현장의 모습. ©현지 영상 캡처

는 데 합의했고, 이후 합의된 방향에 따라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 역시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협상단을 이끈 루스心底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1000명씩 포로를 교환하기로 논의했다"며 "교환 날짜는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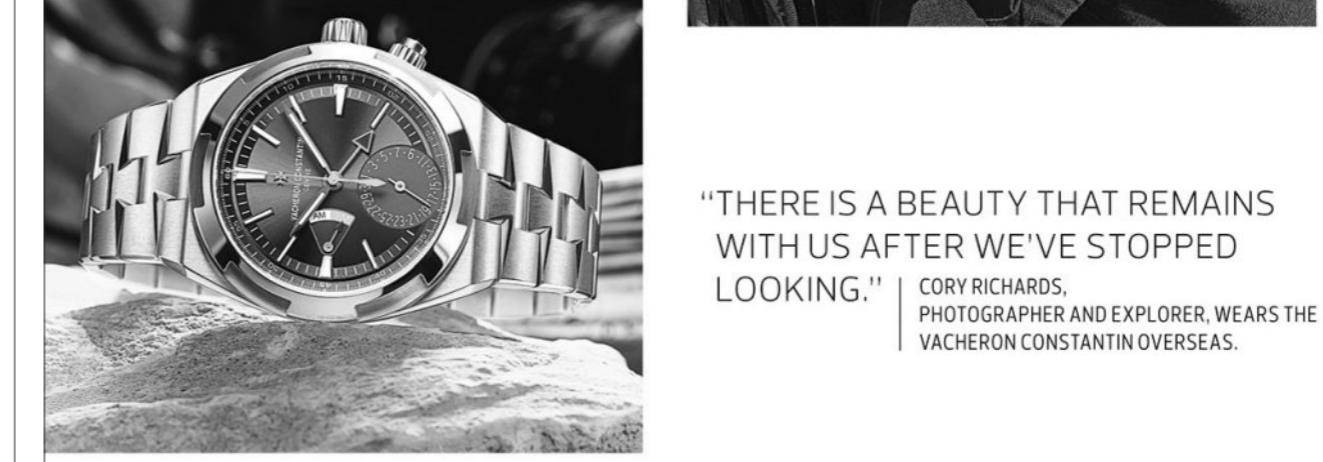
하지만 핵심 현안에 있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는 협상 후 "러시아 대표단은 협상 중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히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침착한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페데스키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측이 국가 정상 간 직접 회담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협상에서 다룰 휴전 조건에 대한 양측의 비전을 문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 측의 휴전 관련 비전을 문서로 구체화하

기를 끌내기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또 다른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몇 년 간 간접적 경로를 통해 소통해왔던 양국이 전면전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공식 협상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약 100분도 되지 않아 짧게 마무리됐으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향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지는 못했다. 다만, 포로 교환이라는 인도적 조치와 향후 휴전 조건에 대한 문서화 논의는 다음 협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추가 협상을 이어가며 협상의 가능성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I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  
설교: 그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목사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Roma Aeterna), 즉 “영원한 로마”라고 표현한다.

바벨론 제국, 앗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정키스칸의 몽골 제국, 이 외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 물론 로마 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를 “영원한 로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 제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남긴 문화와 문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만나고 또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공화정, 공화국, 공화주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 “Res Publica” “공공의 것” “Public Thing”이라는 의미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공화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로마 공화정 시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정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텔레야 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로마법에 따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사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특별히 그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하나가 되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과거사”인 동시에 “현재사”요, “정치사”인 동시에 “교회사”이며,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 “영원한 로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마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하여 19세기 독일의 역사가였던 랑케(1795-1866)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모든 고대사는 하나님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되어 로마사로 흘러 들어가고, 근대사 전체는 로마사로부터 다시 흘러 나

왔다.”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근대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로마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오셨기 때문이다.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게 되었고,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면서 근대사, 근대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녹여진 근대사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중해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에는 그 복음이 대동강을 통해,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으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반만년 동안 우상들의 젖을 물고 살아가던 이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녹여진 젖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된 것이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조대 황제 아우구스투스(BC63-AD14)가 통치하던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티나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예수다. 그 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다.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매(눅21:3)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21:6)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죽일 것을 명령한다.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시무시한 정치권력 투

쟁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기독교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시작부터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발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행17:7)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어떤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King of Kings)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소동이 일어난 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정치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던 “왕궁”이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리바이벌 코리아와 같은 옥외 집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가 본격화되었다. 당연히 리바이벌 코리아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선관위 관계자가 저의 설교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담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가지 하려고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대한민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설교자들의 설교는 이 땅의 성도들은 물론 모든 민족과 백성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는, 그리고 그 분 한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바칠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연설”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전”이며, 세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일종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정치적인 서약”이다.

심지어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적,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평민들의 민회를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였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고, 그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인 책임이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국가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박해는 제국의 공공질서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공의로운 일로 간주되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꿈꾸는 그의 정치적인 도발 행위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은 지금도 동일하다. 비록 정치적인 안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만큼 그것이 과부에 생생하게 와 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정치적이다.

이 땅의 모든 정치적 격랑 속에서,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 분에게만 충성을 서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정치적인 본질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서구의 교회들이 교회 내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큰 흥역을 앓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교회와 정치를 결합하여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 모두,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정치체계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는, 물이 바다 뒤집 같아 예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진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권 아래 하나님 되어지는 정치적인 통합. 그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이 바로 “선교”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 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항상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감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말아야 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아네스트 베커의 말에 따르면, 사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종교적인 체험에서 얻었던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나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빙자리를 채울 또 다른 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 활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어 버린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정치”가 대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세속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음으로

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시요, 열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칼 앞에서도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왕으로 고백했듯이, 예배를 금지하는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대로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을 증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북한동포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사람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 입을, 이 뜨거운 정치적인 현장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페트릭 슈라이너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훨씬 작아야 할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있다. 진정한 정치적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기이사의 통치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이다.”

신야 성경을 보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같은 사람의 지배하던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시도들이 기이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횟수를 세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처럼 보여질 정도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주권을 매일같이 상기해야만 했다. 그들은 무역할 때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고받았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황제의 동상과 기념물 아래를 지나가야 했고, 로마 총독들이 저지르는 꼼꼼한 행정작사법적 불의를 목격해야 했다. 이런 로마의 그림자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행한 가장 혁명적인 행동은 로마 황제에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극적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의 시선을 로마의 권리아 아니라, 더 위대한 권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돌렸다. 우리는 이 전략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활동.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만 부르짖는 것이다. (계속)

그들은 대부분 사람의 시선을 로마의 권리아 아니라, 더 위대한 권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돌렸다. 우리는 이 전략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활동.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만 부르짖는 것이다.

※ 상기 설교는 지난 5월 17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 된 제5차 리바이벌 코리아 미스 바 광장 기도회에서 이태희 목사가 설교한 내용 전문입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기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자본권 예금판권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감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율을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판권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당신의 설교자를 검증하십시오!

이반석 전도사  
예장백석총회  
안양노회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번 하늘에 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봉독한 성경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 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유명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신앙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방금 봉독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네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방금 읽은 성경구절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해석 차이를 불러일으킨 중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네게’를 사도 베드로에 한정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다시 말해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기초를 제시해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대표 교황으로 선정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받은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모두가 이어받았다고 해석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많은 사도

들 중 한 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파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로마 카톨릭과는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와 상당히 많이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학적 해석 차이, 성경해석의 차이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신학이란 존재한다”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디자일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도 삼위일체를 따르고 개신교와 같은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 구체적으로 개신교를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공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봐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은 왜 천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이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이 교리적 문제를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신앙고백이 제가 따르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이 아닌,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그 어떠한 선행도 충족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의 신앙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목숨 걸고서 믿었던 바입니다. 개신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성경구절을 읽고서 주장했던 것이 존 칼빈을 통해 체계화 되었고 지금 까지 이어져 우리 장로교의 구원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개신교 정통신학이라는 첫 번째 갈래입니다.

이제 신학의 두 번째 갈래를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좌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좌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 아닌, 이성적 사고를 취함으로써 지식적인 완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디자일해, 자산인이 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이성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신학의 두 번째 갈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본래 계몽주의 시대 때 이 성적 사고를 요구했던 철학적 흐름에 대

한 응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온 악한 신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자유주의 신학이 체계화되어 가면서 정통신학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기독교 이단의 교리를 용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으로 위험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학문적으로는 가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정통 교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신학의 두 번째 갈래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진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특별한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신학의 두 번째 갈래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

주의 신학은 본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상’이라는 무기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죽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더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독보적인 권위가 추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적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학의 세 번째 갈래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란 다시 등장한 정통주의라는 뜻으로 정통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믿음’과 자유주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이상’ 모두를 불들려고 하였습니다. 현대의 흐름에 맞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정통신학을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현대적으로 이해 및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달리,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설교자를 검증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를 검증하십시오. 당신의 설교자는 어떠한 신학

##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최민기 선교사  
과테말라 선교사

사람에 따라서 회심의 순간이 비교적 분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는 전자에 속하고 아내는 후자에 속한다.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이다.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신데, 신학을 마치자마자 처녀 때 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지금 그 시대 간증을 들으면 비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범죄에 가까운 수난을 당하신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마을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교회에 독사를 풀었다는지, 무당을 불러 콧을 하고 뚫물을 뿐 놀라운 그 일들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시절 개척 교회의 일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목사님을 모셨고 그 교회가 지금도 남원의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교회가 학교보다도 더 편하고 친근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태신앙 인들이 대체로 그렇겠지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분명한 회심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모태신앙 인들은 겉으로는 느슨하고 열정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여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어릴 때는 성당에 다녔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뛰어들었지 않기 때문에 내 기억에 “복음”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전혀 이해 못 했던 것 같다. 아니라면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했다. 왜냐하면 내 학창 시절에는 락과 헤비메탈이 유행하였는데, 지금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때 당시 내가 좋아하던 밴드들의 기본적인 컨셉은 반기독교였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라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던 중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준 전도자를 만났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16:31),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사도행전4:12)

전도자는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임을 확신 있게 이야기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진부한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라졌다 생각되지 않는다.

그날 밤 전도자는 나의 회심에 도장을 찍듯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http://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http://www.janssen.com/korea)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 초고령화 시대의 '은빛 청년들'

이상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이름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어(2024년 12 월 23일 기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며, 2062년에는 홍콩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일본 10년, 독일 36년, 프랑스 39년이 각각 걸

린 반면에 한국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는 한민족이 걸어온 근현대사의 축소판이자 미러 이미지(mirror image)다.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란 뜻이다. 한국의 국내 현실이 큰 여과 없이 그대로 미주 한인사회에 투영되어 왔음을 안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국가가 된 한국 사회의 변화는 미주 한인 교계와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어떤가?

미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15%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30년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향후 30년 동안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는 머지않는 미래에 세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지나 러문도 미 상무장관은 "고령화

문제가 벽돌 더미처럼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저출산에 따른 세계 인구 붕괴는 인류 문명에 지구 온난화보다 훨씬 큰 위협 요소"라고 주장했다. 초고령 사회로 전 세계가 재편되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분야는 경제다. 고령화에 휘감긴 지역구촌의 어둔 풍경을 세계 경제에 덮치는 '은빛 쓰나미'라 표현할 정도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소비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심각하다. 가족구조 변화와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축소 및 상실, 배우자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신체기능 저하, 경제력 감소 등 노년기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문제들이 우울, 외로움, 고립감, 자괴감 등을 유발한다. 급기야 스스로 사회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여겨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기도 한다.

"노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세상에 묻지 말고, 노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물어야 할 때이다." 스텐 퍼드 장수연구센터(Stanford Center on Longevity)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라 L. 카스텐슨 교수의 말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년을 위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올린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시 7:18 새번역).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꿈꾸며 계속 성장하는 시니어는 나이는 들겠지만 늙지 않는다. '은빛 청년들'(silver youth)이다. 이들에게 있어 시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일자선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애 동안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절차이고 주관적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 가깝다.

나이 들은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의 멀어짐이나 떠남이 아닌 그 안에서의 지속적 '머물'과 '자립'이다. 시니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돋는 사역이 활성화되면 교회 안팎에 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는 우리 한인 사회와 교계의 지원과 연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니어 사역의 지속성과 함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니어의 영적, 정신적 성장을 도와 문화적 성숙과 영적 지혜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은빛 청년' 시니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져야 할 때다.

## 청년들의 공동체를 향한 갈망

이상기 대표

AM미니스트리

(AM 선교회)



적 지향적 사역 공동체 예: 문화예술 사역, 사회봉사, 환경운동, 학문 연구 등)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이가는 과정 속에서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선교단체 및 초교파적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이미 많은 선교단체나 청년 사역 단체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모든 필요를 충족 시키기 어렵다면 이러한 외부 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삶의 현장 중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생활, 즉 학업, 직장,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속적인 소통과 격려, 혹은 지역 기반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 신앙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역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들의 필요를 체워줄 수 있을까요?

첫째, 소그룹 중심의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대형화된 교회 시스템 안에서 개원하며, 때로는 새로운 공동체를 품어내는 모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전통에 얹매이기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 지향적 사역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천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은사를 반영한 목

그룹, 이러한 대안적 모색이 기존 교회의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성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격려하고 시도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새로운 공동체를 품어내는 모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갈급함과 공동체를 향한 열망은 교회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다음 세대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구봉주 목사

김사한인교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가정, 부모님, 자녀, 형제와 자매 생각만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다 문득, 사역자들, 목회자,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괜한 투정이나, 푸념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만 겪는 특수한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역자인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옮기면서, 늘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슬픔을 겪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픈 기억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장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어릴 적, 선교지에서 또래 학생들로부터, 너는 선교사님 자녀니까, 우리에게 나눠 줘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늘 물건을 빼앗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께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강박과 피해의식 우울증이 있다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겪는 또 한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아무 상관없는 부모님의 소명과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고와 헌신 환상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성장하는 동안, 줄곧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옮기면서, 늘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슬픔을 겪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픈 기억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장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어릴 적, 선교지에서 또래 학생들로부터, 너는 선교사님 자녀니까, 우리에게 나눠 줘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늘 물건을 빼앗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께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강박과 피해의식 우울증이 있다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겪는 또 한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아무 상관없는 부모님의 소명과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고와 헌신 환상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복음 통일을 이미 실천하는 사람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KCMUSA 이사장

##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40여 년 전 청년 장교 시절, 저는 동해안 꼭대기의 통일전망대 앞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초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색 정찰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숲을 누비고, 매복의 임무를 떠고 계곡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의 초소는 남자들만 사는 구역이라 좁은 곳의 콘크리트 지하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곳은 기구한 역사의 한이 드러나 있는 장소입니다. 이를 치유하는 통일은 투쟁이 아니라 평화, 갈등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 그리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선교회 본부와 교회에서는 그러한 평화통일, 치유통일과 자유통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하여 구출된 사람들은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탈북자매님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를 거쳐서 중국인에게 팔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신앙으로 먼저 정착하고 한국에 뿌리를 내린

성동 마을에 날리는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제3 땅굴도 방문했습니다. 지하로 수백 미터를 걸어 들어가 땅굴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암반을 파서 폭 암을 설치한 구멍이 여러 개 보였고, 물은 북쪽으로 흐르도록 경사가 나 있었습니다. 도라전망대에 올라 망원경으로 멀리 개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시민들이 이곳까지 올라와 눈물과 아픔의 마음을 품고 고향의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전망대 2층에 있는 기억의 공간에는 수천 개의 그림과 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의 벽에는 이산과 비극의 아픈 사연이 타일처럼 가득 붙어 있습니다.

그곳은 기구한 역사의 한이 드러나 있는 장소입니다. 이를 치유하는 통일은 투쟁이 아니라 평화, 갈등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 그리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선교회 본부와 교회에서는 그러한 평화통일, 치유통일과 자유통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하여 구출된 사람들은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탈북자매님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를 거쳐서 중국인에게 팔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신앙으로 먼저 정착하고 한국에 뿌리를 내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탈북인이 가진 정보, “탈북한 후 선교사를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선교회의 선교사님은 잡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탈북민을 도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한국 시민 이전에 천국 시민이 되게 하였습니다.

현대판 순돌리의 리스트가 선교사님에 의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신앙교육을 마치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순전한 신앙고백과 간증, 그리고 눈물을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과 세례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속에서 돈을 벌겠다고 중국으로 나와, 인신매매와 출산으로 수십 년을 지내고,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한 맷힌 인생의 눈물과 신음이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생활은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처럼 신분조차 없는 지워진 삶이 아니라, 어엿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도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물 젖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대한민국의 품에서 복되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통일은 예수 안에서, 탈북 성도의 감격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동족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율곡의 십만건군론과 청년취업안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역사이긴 하지만 그의 제안이 실천되었더라면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요,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허무하게 나라가 거칠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오늘 고직한 선교사와 전화로 나눈 대화에서 얻은 정보 때문입니다.

그는 율곡의 십만 건군론을 청년실업 해결에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10만 명을 해외로 특히 제3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 파송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창업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청년 중에 유망한 청년들 10만 명을 정부가 뒷받침하여 국내외에서 창업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날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된 성공 사례입니다. 외무부 기관 중에 정부 예산으로 후진국을 돋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청년들을 해외파견하여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면서 그들 중에 10만 명의 청년 창업 일꾼으로 기르자는 제안입니다. 위대하였던 조상 율곡 선생의 십만 건군론을 10만 청년 창업론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전화안내 02-739-8119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社 說

### 공권력의 교회 침탈, 성명서로 끝낼 일인가

경찰이 부산 세계로교회에 들어가 손현보 목사의 후대폰과 교회 서류 등을 압수 수색한 사건과 관련해 손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으로 비치며 교계에 공분이 확산하자 서둘러 교단 차원의 입장 표명과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신총회는 15일 발표한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025년 5월 12일 아침 8시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 경찰들이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의(손현보) 담임목사 집무실과 본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담임목사의 휴대폰과 읽고 있는 책들과 문서를 압수해 갔다”며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방문했던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후보 입장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짧은 대답을 사전선언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신총회 성명의 끝자는 경찰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실과 본당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어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탄 성명은 발표 시점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경찰이 세계로교회를 압수 수색한 사건이 지난 12일에 있었고, 이런 사실을 손 목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인 13일에 예자연과 세계로교회 고인 명의 향의 성명이 나왔다. 고신총회의 성명은 이 성명이 나온 지 이틀 만인 15일이나 나왔다는 점에서 기민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 시안에 대한 교단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다. 교단에 속한 전체 교회와 구성원의 생각과 판단을 담기 때문이다. 고신총회의 성명이 다소 늦게 나오게 된 것도 현 상황이 위중한 만큼 절차적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공권력이 교회를 침탈한 사건이 아닌가.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것도, 이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교회에 들어다쳐 예배당 안을 휘저어 가며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종교적 성역이라는 ‘금기’를 파괴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 특히 교단이 빨리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고 권력에 유린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사건은 부산 선관위가 손 목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세워 대답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손 목사가 교회를 방문한 교육감 후보에게 평소처럼 설교 시간에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이념 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대답을 진행한 것이 사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세계

로교회에 들어가 본당과 담임목사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는 점이다. 만약 군사독재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교계가 온통 들고 일어나 ‘종교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고 거리에 나가 “독재 타도”를 외쳤을 사안이 21세기, 민주화 시대 백주에 벌어진 것이다.

전국유권자연맹 등 253개 시민단체가 “과거에 유신독재 시대에도 운동권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할 경우 경찰들이 학생들을 잡으려고 갑히 명동성당에 침투하지 못한 점, 광우병 사태 때 배후 조종자로 수배받았던 혐의자들이 조계사로 피신했을 때 경찰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조계사로 침투하지 못한 점” 등의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을 교회에 대한 모독이자 기독교에 대한 친탈행위로 간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계는 손 목사가 설령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개인 휴대폰을 압수하고 교회 서류까지 압수할 정도로 긴박한 중대 범죄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보다는 코로나 팬데믹 때 문재인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에 저항하는 등 정치적 사안에 기인없이 목소리를 내온 교회 목회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 배경으로 지난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기자로 한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된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지목되고 있다. 교계뿐 아니라 전 국민이 주목한 이 두 대형 행사 모두 손 목사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에 보수 기독교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거다.

관건은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교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계 여러 기관 단체가 항목소리로 규탄 성명은 낸 건 고무적이다. 해당 교단인 고신총회가 신속 대응보다 신중 대응을 선택한 것처럼 아쉽기는 하지만 교단적으로 분명한 입장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로 끝낼 문제인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계가 특정 사안에 이처럼 들끓은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모두가 들고 일어나 성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공권력이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다. 권력이 종교를 자폐하기 위해 탄압하고 배척한 건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그렇다고 거리에 나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하라고 등 떠이는 게 아니다.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건 보수·진보, 좌·우 신념과 상관없이 교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밀하려는 거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정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권력의 교회 침탈마저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나누는 건 지금히 위험한 생각이다.



# 초여름 날씨에 식중독 불안… 급식·나들이 주의하세요

서울 초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나들이도 주의 필요… 음식 실온 노출 피해야

봄철 낮기온이 오르고 아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잇따라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봄은 한여름 수준으로 덥진 않지만 날씨가 포근해 식중독을 방지해선 안 되는 기간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진다.

교육 및 보육시설은 밀집도가 높고 화장실 등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 점, 집단 급식을 실시하는 점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장소로 꼽힌다. 2023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총 600건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형 가운데 217건(36.2%)이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발생했다.

217건 중 어린이집이 89건(전체 대비 14.8%)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는 42건(7.0%), 유치원은 38 건(6.3%) 발생했다.

작년 7월 전북 남원의 초중고교 24곳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며 우려를 모았다. 당시 환자가 나온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납품받은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음식을 장시간 실온에 노출 시기거나 위생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식중

독에 걸리기 쉽다. 지난달 중순 충남의 한 축제 현장에선 떡과 도시락을 먹은 고령자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다수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조리 전과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담을 땐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을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 10도 이하 온도로 보관해야 한다.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엔 가급적 전문 업체

(HACCP 인증) 도시락 이용이 권고된다. 도시락은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식중독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월부터 10월 초까지 '날씨'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 체계를 유지한다.

질병청은 "20일 이상 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리루 기자

## 국내 첫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 나만의닥터, 공식 출시

건강정보 한 곳에서 확인…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민간기업 중 국내 최초로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나만의닥터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사용자가 모든 의료기록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비대면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와 연동돼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의 원활한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만의닥터 유저들은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의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 큰 장점이다.

수 있다. 병원 및 약국 방문 이력, 처방받은 의약품, 예방접종, 건강검진 이력 및 결과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나만의닥터는 고객의 의료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철저히 암호화되어 사용자 디바이스 내에만 저장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기록을 열람하려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여러 기관의 복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나만의닥터에서는 단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개인의 통합 의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 큰 장점이다.

아울러 대학병원에서만 제공되던 수술, 정밀검사(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알레르기 등의 정보를 나만의닥터에서 민간기업 최초로 제공한다.

앞서 나만의닥터는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돼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와의 연동을 준비해왔다.

선제원 메라카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이번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의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사용자들이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실현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은 '저출생·고령화 정책'

'2025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 시상식 개최

3639개 제안 중 우수작 31개 선정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이 심사를 마무리하고 5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가 주최하고 저출생·고령화 추진본부가 후원한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639개의 제안이쏟아졌다.

특히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3천 건이 넘는 정책 아이디어 중 대상 1건,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각각 15건씩 총 31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고, 16일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대상은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의 '효 포인트'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탄소중립 활동·기후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안이다. 김 씨는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권여리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맘택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육아용품을 비치한 전용 택시 서비스를 통해 외출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혁신

실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 이를 낳고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승현 학생은 큰 글씨,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기능, 전광판 속도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세대가 만나는 연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배호중 씨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성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가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 이내에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홍정윤 씨는 같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를 제안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무직 상태의 조부모나 친족이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청년의 주거 안정, 지역 중심의 돌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정책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험과 눈높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실제 정부에 이어지도록 앞장서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시 최대 3억 지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000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분쟁 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 방식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사고는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복지부 또

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루리 기자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세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 두두아쿠아  
인증번호: 10307836호 학업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부탁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제품 구매하러 가기 →  
153세싹마늘 스마트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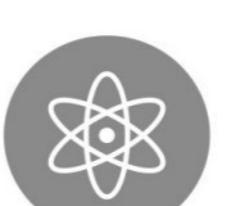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 153세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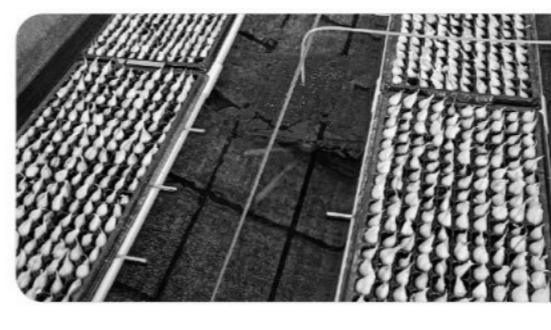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N 153 세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독 제도 있음. (수시접수)

##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관없이 사랑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학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교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반)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독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부 및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학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 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NCS평생교육원)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sup>2</sup>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 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맘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⑥

「바른예수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당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행세를 하면서도 범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여, 「연자연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빼뜨리우는 것이 났다. 하셨나요? 또 「자라리 나지 않으면 좋은 바다」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가요? 개인에게나, 가정을 위해서나, 국가 민족,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간전한 삶을 위해서는 진정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활개를 치고 있는 까닭에 오늘날 인류 사회가 최악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 아닌 존재를 신으로 믿고 있는 종교의 세력으로 인하여 언어가 심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가 없는 상태」의 교회,로서 여전히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믿고 있는 목사가 「양의 털을 쓴 늑대」인 줄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사망의 골짜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망할 때 되어서야 깨닫고 돌아오려 하자마 이마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는 저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자 부단히 애쓰는 자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좌악의 흥수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맑은 물줄기를 향하여 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아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감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생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현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현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1995. 9 개척
- 2000. 4 1차 성전건축
- 2008. 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신령  
방법**

-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 한생교회: 032-512-3375

**한생  
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 3 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 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크리스천 리더십의 '본질'을 말하다

### 신간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이 책의 제목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따랐다. 세상의 권력 구조처럼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바로 그 예수의 리더십 정신을 회복하자는 제안이다.

#### 1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질서’ 아래 존재하는 공동체이며, 리더십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다. 그리스

도가 머리가 되어 각 지체가 은사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일 때, 교회는 살아 있는 몸처럼 기능한다.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 2부: 아나뱁티스트의 리더십

아나뱁티스트 전통은 ‘삶과 따름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예수 한 분만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종된 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권력자가 아닌 함께 걷는 동반자다. 이 전통은 화해, 정의, 생태, 소수자 보호, 비폭력 저항 등을 리더십의 핵심 영역으로 다룬다.

#### 3부: 지속 가능한 리더십 원리

리더십은 탁월한 전략보다 ‘인격’에서 비롯된다. 신뢰는 사소한 배려와 경험에서 시작되며, 예수의 리더십은 그 만남의 진정성에서 빛났다. 사람을 조건 없이 대하며 삶의 고통을

이해했던 예수처럼, 리더는 존재 자체로 사람을 만나야 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걸어야 한다.

#### 4부: 리더십의 본질로

진짜 리더는 공동체 전체와 개별 구성원을 동시에 바라보며, 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책임진다. 리더는 명령자가 아니라 멘토이자 코치, 촉진자이며, 구성원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섬김은 곧 훈련과 지원, 그리고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구체화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현재 리더로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리더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더십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따름,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헌신을 따라 살아가는 리더십은 단지 교회 내의 적용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학교, 사회,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본질적 가치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천 리더에게 꼭 필요한 통찰과 도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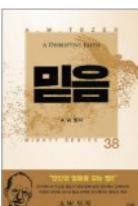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는 리더십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섬김과 평화, 책임과 신뢰 위에 세워진 리더십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낸다. 그 첫걸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책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책이며,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 본 도서는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 A.W. 토저가 외치는 치열한 ‘신앙의 전투’로의 초대

### 신간 ‘믿음’



20세기 영적 거장 A. W. 토저의 통찰을 다시금 마주하는 특별한 신간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단순하다. ‘믿음’.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한 단어 안에 담긴 깊이와 무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정의한다. 그러나 토저는 단호하게 말한다. “믿음은 결코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 인식 기관’이라는 것이다. 〈믿음〉은 독자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신앙의 정의를 뒤흔들며, 그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성찰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토저는 성경의 핵심 본문 중 하나인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를 중심축으로 삼아, 독자들을 믿음의 경주와 전투로 초대한다. 그는 단호히 말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충돌하게 된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불같이 연단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토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각자가 처한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든다. “십자가를 지다가 그 무게에 눌려 주저앉고 말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진리들”이 있음을 그는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호소한다.

책 전체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토저는 이 진리를 날카롭고도 따뜻하게, 때론 경고처럼, 때론 격려처럼 반복해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믿음은 이성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해진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성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은 책임을 떠안는다. 신앙인에게 믿음은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방대한 이해의 세계를 열어주는 인식 기관이다.”

〈믿음〉은 이러한 영적 인식 기관으로서의 믿음을 어떻게 단련시킬 수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걸어야 하는지를 안내한다.

이 책은 단지 신학적 논증이 담긴 책이 아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동시에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 사랑에 응답하게 만드는 내면의 훈련서다.

최승연 기자

## 이태석 신부 선종 15주기 맞아 서간집 출간

### 수단 톤즈에서의 현신, 81통 편지와 미공개 사진으로 생생히 되살아나다



사단법인 이태석신부의 수단아린이장학회는 이태석 신부 선종 15주기를 기념해, 그의 삶과 영성을 담은 서간집 『톤즈에서 희망을 노래한 사람』을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서간집은 돈보스코미디어와 협력해 제작됐다.

이태석 신부는 가톨릭 살레시오회 소속 사제로, 2001년부터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

즈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다. 내전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톤즈에서 그는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그의 현신은 단순한 의료봉사를 넘어 톤즈 주민들과의 깊은 유대와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복음 실천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일시 귀국 중 대장암 판정을 받은 그는 투병 끝에 2010년 48세를 일기

로 선종했다. 그의 삶은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널리 알려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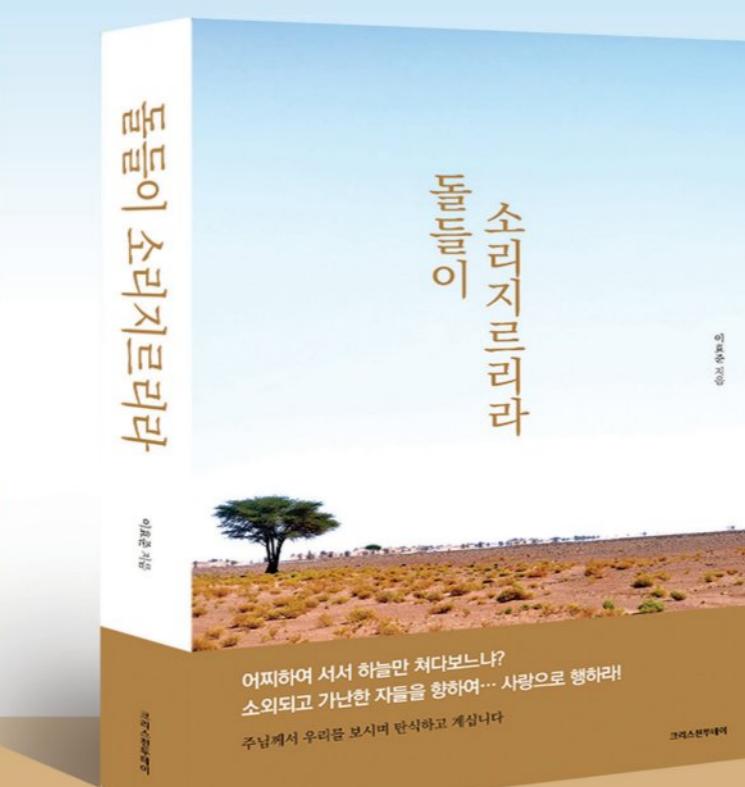
이번 서간집에는 그가 남긴 총 81통의 편지와 110장의 사진이 담겼다. 특히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사진들도 있고,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그가 어떤 마음가짐과 신념, 영성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말년의 고노와 내면적 성찰까지도 담아낸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출판 관계자는 “편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이태석 신부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통로”라며, “그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사랑과 책임, 희생의 정신이 이 서간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서간집은 의료, 교육, 신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 사람의 온전한 현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태석 신부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내기자

###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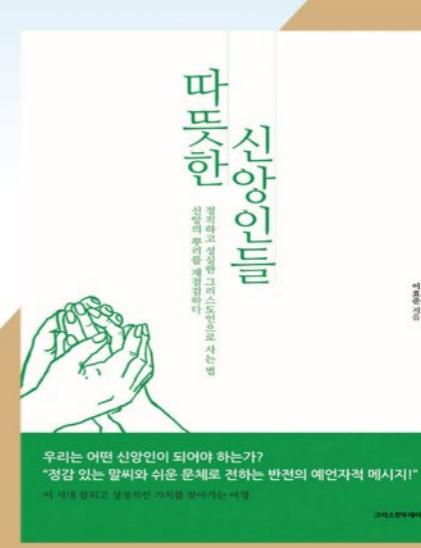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장교회)

증언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날새롭게 하소서

#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1)

이 소논문은 비교적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을 잘 다루고 있다. 〈신앙 감정론〉을 중심으로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원론과 성령론을 설명하고 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였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회의 경험과 학자적인 자질은 뛰어나며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신앙 감정론〉은 그 중요한 결과물이다.

신앙 감정론에서 affection에 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ffection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주입과 관계가 있으며, 성령의 주입은 Habitu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앙은 성령의 주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성령의 주입은 로크가 주장했듯이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것을 에드워즈 목사님은 '경향성'이라고 한다. 경향성은 하나님의 실제와 연계된다. 하나님은 경향성의 실체로서, 완전한 현실 태이자 성향이다. 따라서 완전하시지만 내적인 완전성을 발산하신다.

성도에게 성령이 주입되면, 하나님의 경향성이 주입되기 때문에 그의 도덕적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실천한다. 그 실천

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경향성은 목적을 지향한다. 잠재태이지만, 현실 태로 계속적으로 향한다. 성도는 그러나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점에는 하나님에 계신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무한히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확대하여 장경철 교수님은 '영광화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어설판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학, 특히 구원론과 성령론에 대한 개략적이지만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감정(affection)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진락 목사

현대기독교아카데미 일일집중세미나 (2008년 12월 15일, 교회다움)

## 1. 부흥 & 복음주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흥(revival)이라는 말은 침체된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부흥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흥을 침체기에서의 회복이라는 의미

로 제한시키지 않고, 정규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의 신앙적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의 특별하고 강력한 부어주심의 경험으로 간주한다.

로이드 존스(Lloyd Jones)와 제임스 패커(James Packer)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대표적인 부흥의 사건이고,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집회,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소생 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운동과 같은 구약의 여러 사건들도 부흥이고, 나아가서 종교개혁과 청교도 운동도 부흥 운동이다. 이런 식이면 약간 이상해진다!

도식화의 위험에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복음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상당 부분 계승하면서 동시에 부흥 운동적인 차원에서의 체험적 신앙과 복음 전도의 열정이라는 18세기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고 부흥 운동은 18세기에 등장한 복음주의 운동에 18세기적인 새로움을 불어넣어준 가장 중요한 신앙 운동이다.

한편, 에드워즈는 부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과 대립했다. 한 부류는 부흥을 반대하는 이성주의자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부흥

을 왜곡하는 열광주의자들이었다. 에드워즈의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암편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들 중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성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분리시켰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열광주의자들은 이성과 무관하게 감정이 자신의 열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드워즈에 따르면, 이성과 감정은 통합된 것이다. 이성과 감정은 함께 간다-감정적인 이성과 이성적인 감정이다. 거기엔 빛과 열이 공존한다.

다음으로, 이성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은 부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주의자들은 부흥에 나타나는 감정의 생생한 뜨거움을 무조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열광주의자들은 부흥에 나타나는 감정의 과도한 흥분과 무질서한 혼란스러움까지도 순수한 것으로 정당화시켰다.

에드워즈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잔존하는 부패와 연약함 때문에 부흥의 역사 속에도 부패와 연약함이 스며들어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성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균형 있게 강조하지 못했다.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추상화시키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려고 한다.

반면에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충만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별로 없다. 양자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리시키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이라고 한다면, 이성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은 신앙과 실천을 분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신앙은 실천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실천은 신앙 안에서 자기표현의 근거와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바이블지식IN

## 행음과 간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음(“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교, 간음을 포함”)과 간음(“결혼한 사람과 법적 배우자가 아닌 동반자와의 성교”)의 현대 사전적 정의는 꽤 간단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성적인 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문자 그대로, 또한 비유적으로도 우상숭배를 언급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모든 성적인 죄는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 관습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상숭배 맥락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영적 행음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여태까지 21:10-14에서 하나님은 여호라미 사람들을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 그를 전염병과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11절), 또 “음행하게 하기”를 아함의 짐이 음행하듯 하[였습니다]” (13절).

아함 왕은 음탕한 신 바알의 여승인 이세벨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가장 지독한 종류의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에스

겔 16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음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우상숭배”的 의미를 지닌 단어 행음은 이 장 안에서만 수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 나라들에게 자제, 부유함, 능력으로 인해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은 마치 여성의 아름다움과 같이 그 나라들에게 유혹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심을 사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관습에까지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행음이라는 단어는 이교도의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이교도 “숭배”가 의해 과정에 성교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에서 성전 매춘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성적 죄는 이러한 종교들에 용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숭배자들을 위해 신이 주는 더 큰 죽복, 특별히 가족과 과식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써 권장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행음은 (fornication)은 간음과 근

친상간의 의미를 포함하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로부터 온 것입니다. 포르네이아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불법적 정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성적인 죄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반면, 요한계시록에서 “행음은 언제나 우상숭배를 언급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우상숭배 행음에 관여한 소아시아의 두 교회들을 정죄하고 (요한계시록 2:14, 20), 또한 우상숭배의 거짓 종교인 말세의 “큰 음녀”를 언급하시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요한계시록 17:1-2).

한편,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저지르는 성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문자적 비유적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사용됩니다. “간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결혼을 깨다”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을 간음으로 묘사하십니다. 유대 민족은 여호와의 배우자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로 돌아섰을 때 간음한 아내로 비유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를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섭기는” 음탕한 여인으로 언급했습니다(출애굽기 34:15-16, 레위기 17:7, 에스겔 6:9). 더욱이,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간음한 아내, 고멜에 비유합니다. 호세아를 거역한 고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 진짜 남편(여호와)을 떠나 다른 신들과 영적 간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간음”으로 번역된 두 헬라어는 거의 항상 문자 그대로 결혼한 동반자들과 연루된 성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요한계시록 2:20)을 용납했다는 이유로 정죄 받은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뿐입니다. 이세벨은 비도덕적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관습에 교회를 끌어들였고, 그녀의 거짓 교리에 호도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와 행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갓퀘스천스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40:2 NIV

He lifted me out of the slimy pit,  
out of the mud and mire; he set  
my feet on a rock ...

- lift out of : ~에서 들어 올리다

- slimy : (더럽고) 질척거리는

- pit : 구덩이

- mud and mire : 진흙과 수렁

- rock : 반석(盤石)

시편 40편2절

주님께서 나를 질척거리는 웅덩이에서, 진흙과 수렁에서 들어 올리시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 은혜의샘물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2)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대로,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는 겸손으로 인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바친 애절한기도, “오 주님 부족한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를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소녀와 같은 신앙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습니다. . . .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셋째, 하나님은 빈 그릇에 깊은 관심을 보아십니다. 선지 생도의 부인의 방안에

는 많은 빈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가나의 잔 칫집에 참석해서 바어 있는 돌 항아리 여섯 개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빙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메말라 있는 민중의 아픔과 슬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실 때에, 병 고침, 위로, 사랑, 빵 등으로 채워져야 할 빈 그릇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이천년 전 빙들을 헤매던 민중들처럼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채움 받아야 할 빈 그릇들은 아닙니까? 선지 생도 부인의 골방에 채워진 빈 그릇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는 믿음이 한 저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에게 명령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한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

비어 있습니다. 빈 그릇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빈 그릇은 가난한 이들의 그릇입니다. 빈 그릇은 병든 이들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빈 그릇은 깨끗합니다. 빈 그릇은 겸손합니다. 빈 그릇에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빈 그릇에는 갑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빈 그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 선지 생도의 부인의 순종의 믿음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골방에 채워진 빈 그릇들은 기쁨으로 가득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때에 그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행한 일은 빈 그릇을 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에게 자신이 가진 열마리지 아니한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때에 그녀의 가진 기쁨이 소모되어 없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풍성히 넘쳤다는 점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돈이든지, 사

은 빈 그릇에 기쁨을 봇는 일은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한 병의 기쁨으로 많은 빈 그릇들을 채우신 분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인이 행한 일은 믿음으로 빈 그릇을 모으는 일입니다. 많은 빈 그릇들은 채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빈 그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에게 자신이 가진 열마리지 아니한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때에 그녀의 가진 기쁨이 소모되어 없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풍성히 넘쳤다는 점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돈이든지, 사



선지 생도의 부인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지 생도의 부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사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행 김현승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전제’ 더욱 값진 것’이 비록 ‘눈물’이라 할지라도, 이 ‘눈물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성장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 향유복합

##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일생 잘살기는 했는데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풍요로울 뿐 고난 없이  
흘로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중에 낙장송이 있습니다.  
크고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산 이는  
잘 살았지만 영광이 없는 인생이 됩

니다.

그러나 크고 훌륭하게 자란 후  
그 나무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학교 건물의 대들보가 되고  
성문의 버팀목이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 받은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반을 고난이 때에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쁘게 권  
면하고 있습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신앙과 가정

## 기도는 값진 보석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사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와 같이 길가는 것/맥스루카도 지음/운  
종석 옮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려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적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기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탭’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RIE(8-16채널)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 각 파트별 좋은 소리



가. 소프라노

리운 레가토가 이루어질 때 소프라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성인 소프라노는 될 수 있는 대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신선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하며 비브라토를 최소화해서 노래해야 한다. 다른 파트에 나타나는 비브라토보다 소프라노에 나타나는 비브라토가 훨씬 잘 들리기 때문이다. 비브라토가 전혀 없어도 무미건조한 노래가 되기 쉽다. 약간의 비브라토는 노래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특히 소프라노만 나오는 곳이 있다면 분명 그곳은 멜로디를 강조하는 곳이다. 이런 부분은 비브라토가 다소 있어야 감동이 있다. 네 파트가 동시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비브라토보다는 하모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나. 알토

알토는 합창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없으면 안 되는 파트.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에 해당하는 파트가 바로 알토이다. 그러기에 일부 지휘자들에게는 소홀한 파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알토는 합창에 있어 소리를 섞어주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 소프라노와 테너 사이를 노래하며 내성을 든든히 하는 것이 알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변화화음이나 불협화음 등 화음의 변화에 민감해서 알토가 정확히 소리 내야 다양한 하모니를 맛볼 수 있다.

소리를 내는 방법도 알토는 변성되는

은 일부 팝송에는 어울리지 모르나 합창에서는 좋지 않은 버릇이다. 여성은 나이

가 들수록 비브라토를 줄이고 저음은 생소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공기를 조금 섞어서 노래하면 그 소리는 하모니를 만드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그래야

강하지 않고 잘 섞이는 소리가 될 것이다.

공기를 섞는다는 것은 비브라토를 없애는 데도 꼭 필요한 방법이다.

알토 파트에 멜로디가 있으면 당연히

소리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레가토로 노래하고, 소프라노와 유니즌을 하는 경우

소프라노의 발성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피치의 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두

성으로 나는 윗소리를 끌어내리는 발성

연습을 권장한다. 불협화음을 내는 음들

도 알토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음들은 불협화 되는 곳에서 크레센도

시켜주고 협화음으로 해결되는 부분에서

디미뉴에도 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곳에

서 알토 파트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알

토가 음악적으로 노래할 때 음악이 아름

답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 다. 테너

테너 파트는 합창에서 소리를 섞어주는 내성을 담당한다. 사람으로 보면 팔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화려한 면도 가지고 있다. 오페라에서 보면 가장 멋진 파트가 테너인데, 대부분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합창에서는 경우에 따라 독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리를 뽑내고 크게 혹은 생소리로 고음을 낼 때 합창은 망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말로 하면 생소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두성 공명이 된 소리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가 많은 알토 단원들 가운데 말하는 식으로 노래하며, 저음에서 생소리를 내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것

은 호흡 위에 턱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좋은 테너의 소리가 생성된다. 서구 합창단의 경우를 보면 테너 파트가 아주 가벼운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그들 합창의 하모니가 우리보다 좋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벼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팔세토(falsetto)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팔세토 창법은 말 그대로

가성대 즉, 성대의 가장자리를 이용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센 가성(extended head voice)이라고도 하는데, 센 가성은

일단 가성대를 사용하여 소리를 내기 때

문에 진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호흡이

실리는 경우 어느 정도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 합창에서는 이 소리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1테너의 서정적

이고 높은 피치의 소리가 요구된다. 이 소

리는 가성이 아닌 진성인데 젊고 맑은 소

리이다. 이 소리를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

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합창에 좋은 소리를 내는 분들이다.

영국의 합창단들에서는 알토 파트를

나자 성인이 가성으로 노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팔세

토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남

자 대중가수 중 조용필은 팔세토 창법을

자유롭게 구사한 가수이다. 성악곡에 있

어서는 칼 오르프(Karl Orff, 1895-1982)

의 위대한 합창작품 '카르미나 부라나

(Carmina Burana)' 중 한 곡의 테너 아리

아에서 가성을 불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

성악가가 낼 수 있는 가성의 부분으로 매

우 유명하다. 가성대를 이용해 매력적인

소리와 함께 하모니를 잘 만들어 주고,

소리를 질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테너 파

트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때 그 합창

이 아름답기도 하고 드라마틱해 지기도

한다.

테너 파트에서도 알토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파트의 소리를 감싸고 띠워주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의 합창단들이 이런 베이스의 풀리고 감싸주는 소리를 잘 내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목을 늘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풀어서 푸근하게 소리를 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베이스도 저음을 낼 때는 좀 크게 노래해도 좋지만, 높은 도(C) 이상의 고음을 낼 때는 하모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팔세토를 이용 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윗소리는 크지 않게 하고 아랫소리로 내려오면서 크레센도 시킨다는 것

이 합창의 기본 원칙이다. 물론 크게 노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나 크게 끌나는 합창곡의 마지막 부분은 소리를 다(full) 내줘야 멋진 합창이 된다.

테너와 베이스 파트는 4성부 합창을 할 때 다소 리듬감이 부족하고 템포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소 리듬감이 부족하고 템포가 느려져서 합창이 지쳐분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는 남성들이 항상 지휘자를 보면서 노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노래할 때 리듬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합창은 남성의 좋은 소리가 있어야 그 폭이 넓어지고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테너, 베이스가 어떻게 하느냐가 합창의 열쇠이다.

출처 : 박신화 '합창테크닉'

## 마침내 최후 찬양하는 자들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란 인간이 하는 1차적 질료나 재료에 대한 단순한 정보와 같지 않고 통합된 행동과 의식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생명활동의 통섭 지식임을 알려준다(사139:13-14).

모든 지식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 활동인 인간과의 소통은 차원과 통로와 기운과 능력과 진정한 일치를 영적인

발화적 상태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엡1:17-18).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노래할 때(욥33:4) 인간은 자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몸의 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일치되어 어떻게 동요(動搖)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작용 반사 행동에 주체자로 참여해야 한다(엡5:18-19). 이러한 몸의 민감한 동요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을 향한 오랜 앙망의 고통스런 반복된 치명적 시간과 기다

림을 요구한다(사130:5-6). 수없이 반복하고 영적 감화 속도가 주진될 그 때 치명적 감격의 통증을 일으키는 감수성과 동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사42:1-2).

하지만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발이란 심지어 이런 치명적 감격과 열기에도 불구하고 여려 욕구에 매우 유동적이어서 그 주변 환경에 무엇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요동치고 악숙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그 욕구도 점차 사라지면 처음 설립이나 감격의 요동도 없고 화석화되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막대기가 되버린다. 이것이 인간이다. (렘17:9) (롬7:18-19)

것도 일어나지 않는 막대기가 되버린다. 이것이 인간이다. (렘17:9) (롬7:18-19)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에 통증을 느끼는 의로움이 있는 자에게 이 감수성을 희석시키지 않으신다(사34:18).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산 것의 희열을 내시고 그 힘을 함께 내자고 하신다(사16:11).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려 하신다(요15:11). 이 지식은 항상상이라는 몸 감수성이 역동하는 현시적 행동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지식은 정해진 선언문을 읽고 이해하

고 음미하고 지식에 대해 설명해 주는 남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 설명과 경험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해 서 그 영과 함께 걷고 뛰며(빌2:13) 찬양 흡모 영광의 도가니에 사는 것이다(고후 3:18).

## ◆ 이선종 목사

서울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전공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코치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으로 합창지휘전공 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 서울장신대에 출강하였으며, 경희대 강사,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 트레이너를 역임하였다. 현재, 분당크로스 남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히즈쇼, 200개 교회에 '사랑하기 캠페인' 실천키트 무료 배포

캠페인북 2,000부 및  
스티커 2,000세트 지원

기독교 교육 콘텐츠 기업인 '히즈쇼'가 진행한 사랑하기 캠페인 100교회 이벤트에 전국 250개 교회가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히즈쇼는 "당초 100개 교회 선정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관심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200개 교회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했고, 총 2,000개의 사랑하기 캠페인북과 스티커 세트를 각 교회에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랑하기 캠페인'은 히즈쇼가 기획한 실천형 교육 콘텐츠로, 예수님이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제 삶에서 훈련하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7일 동안 '인사하기', 칭찬하기, 용서하기, 사랑하기'라는 네 가지 주제를 따라 진행되며, 각 활동은 말씀 묵상, 마음 나누기, 테스트,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캠페인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는 매일 사랑의 실천 항목을 따라가며 행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히즈쇼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순한 콘텐츠 제공을 넘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캠페인을 구성했다.



캠페인북(왼쪽)과 스티커 세트 ©히즈쇼



히즈쇼 2025 여름성경학교 포스터 ©히즈쇼

캠페인북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었으며, 여름성경학교 전후, 또는 가정과 공동체 모임에서 복습용 또는 사후 실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선정된 여러 교회에서는 "단기간에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했는데, 캠페인북이 딱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칭찬하기'나 '용서하기' 같은 실천은 일상적인 언어와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히즈쇼는 이번 이벤트에 당첨된 200개 교회에는 캠페인북 10부와 스티커 10세트가 각각 발송됐으며, SNS 인증을 통

해 캠페인 후기와 실천 과정을 공유한 교회 중 우수 참여 교회 5곳에는 별도의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히즈쇼 관계자는 "사랑은 단지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캠페인 참여 교회 외에도 여름성경학교 시즌을 앞두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안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랑하기 캠페인은 히즈쇼가 준비한 2025년 여름성경학교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히즈쇼 여름성경학교는 '사랑하기 프로젝트-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배, 공과, 어드벤

처 첼린지, 캠페인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올인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설교 및 공과 PPT, 교사 교육 자료까지 제공되며, 처음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히즈쇼는 "이번 여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아이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과 의미를 배우고, 가정과 교회,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김진영 기자

## "재에서 피어난 희망"… 산불 피해 현장 담은 사진전, 대전에서 열려

경북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신앙 공동체들의 아픔과 그 속에서 움튼 회복의 희망을 담아낸 특별한 사진전이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 함께하는 교회(담임 김기중 목사)는 오는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교회 지하 2층 로비 공간에서 '재, 다시 세운다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기중 목사가 지난달 직접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가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됐다. 그는 불길이 훑쓸고 간 현장을 밭로 누비며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그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믿음과 회복의 움직임을 렌즈에 담았다.

불에 타 사라진 빛과 소금교회의 부엌, 지붕이 붕괴된 매경교회, 잿더미 속에 선 석봉교회는 그 자체로 상처 입은 이웃들의 삶과 신앙을 말없이 전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습들은 단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앙의 잔해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섯 개의 주제로 나뉜다. 1부는 산불 피해의 전반적인 양상을 조망하고, 2부는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준다. 3부는 신앙의 상징이었던 교회 건물들의 소실을 기록하며, 4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교회 공



동체와 성도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마지막 5부는 사진을 찍은 김기중 목사의 해설 글을 함께 실어, 관람객에게 사진 너머의 메시지를 전한다.

교회 측은 전시 기간 동안 피해 교회를 위한 자율 모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재의 흔적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그 재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도 담습니다." 김기중 목사의 이 말처럼, 이번 전시가 고통의 기록을 넘어 연대와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노형구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조건회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153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황웅식 목사(신애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아들통합체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현준 목사(동안교회) 50 2024 하용조 목사의 세븐블레싱	00 생명의 암시 대한(윤명민) 30 축복의 말씀(차영아)(333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화 (831회)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0회)
7:00	00 CTS 뉴스 W 20 생명의 말씀-박성순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20 말씀의 섬터 춘천사랑의교회 윤대영 목사 50 말씀의 섬터 소명중앙교회 김내성 목사	30 휴먼네트	20 주만찬 (73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 (113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8:00	2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Miracle Moment	20 김운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을처럼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학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00 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1567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81회) 스기라 4강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 (70회) 성경 속 직업의 세계 30 비전메시지 사랑교회 김용일 목사
9:00	00 CTS 특별 생방송	00 말씀의 섬터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섬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00 [말씀] 박태호 목사(봉주교회) 40 Q&A 107 소리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10 새롭게하소서 (1128회) 자이언제이 작가	00 성지가 좋다 (483회) 예수님이 흔적을 따라 8 3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135회)
10:00	00 CTS 특별 생방송	00 사론의 꽃 필 때	2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00 파워인티뷰 (189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8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11:00	00 CTS 특별 생방송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50 영적성장의 도구 애니어그램	20 세상을 보는 창 (258회) 50 만나다 (2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 (16회) 전라남도 순천 3부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85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CTS 뉴스 W 20 신앙에세이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말씀의 섬터 박승교회 이순희 목사 30 말씀의 섬터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 (이경을) 30 TV강단 인천제일 (이재일)	20 성경 속 전쟁사 (3회) 출애굽, 신들의 전쟁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상 3분 미라클 30 사랑과 구원의 별자취	00 말씀의 섬터 임마누엘교회 전당암 목사 30 우리들의 자식살롱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올포원 (632회)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 (70회) 성경 속 직업의 세계
14:00	00 CTS 특별 방송	00 2025 청년 다나엘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사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창일 (이사마엘) 30 CBS 아카데미 숲 (116회)	00 믿음의 리액션 (21회) 전라도 군산시 40 성경 속 전쟁사 - 에피소드
15:00	00 CTS 특별 방송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유동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80회) 음기 3강	00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어머니 (8회) 김의신 박사
16:00	00 CTS 특별 방송	0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말씀의 섬터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4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기주새누리교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나엘 기도회 (3회) 50 만나는 교회 (17회)	00 내 삶의 행복 (15회)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50 신앙에세이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10 말씀의 섬터 전주남성교회 안효관 목사 40 말씀의 섬터 영광의교회 조지엘 목사	30 2025 복음과도시 목회자 콘퍼런스	50 영훈의 암시_산위의미을 (김영준)	00 강연소 통 (10회) 내 가족을 살리는 로고테라피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CTS 특별 방송	10 세계테마기행 40 더 깊은 울림 헤드셋 워십	10 레디온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당진동일 (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좋은나루 (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00 CTS 특별 방송	00 말씀의 섬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 (곽승현) 30 TV강단 주일예배(주학선)	00 비전메시지 전주산돌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00 CTS 특별 방송	00 더 메시지 10 비전설교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 40 힐링스토리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크리스천 슈퍼맘	00 TV강단 순복음원당 (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_중앙성결(한기체)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우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30 말씀노트 말씀한장 50 CTS 뉴스	40 GOODTV 뉴스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TV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온누리교회 SNS청년부-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81회) 스기라 4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11회)	1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135회)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 (45회)
22:00	20 [드라마] 더 초조	00 이단사이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고교합교와 함께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 (1128회) 자이언제이 작가	00 예루살렘 데이터리안 (476회) 20 소문난 성경교실 (475회) 주윤석 목사 첫 번째 5강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 : 회개기도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회)
23:00	20 위대한 발걸음 30 사랑과 구원의 별자취	00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1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더 클링 (145회) 30 목사님 궁금해요 (104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1567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 (2회) 40 리비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24:00	00 TV찬양예배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김운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유은정 정장의 마음치료 코칭3	1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3회) 50 성경골팁 이것이 궁금하다 (49회)	00 세이렌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 김진웅 목사 5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10 신사랑 프로의 유틀리온 골프레슨 2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기독교)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한국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39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 (475회)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물왔던 이야기 (20회)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별살롬교회)	30 TV강단 대연성결(임석종)	00 만나 U (20회)
3:00	00 오늘의 정원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맛나는 교회 (1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천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246회) 출애굽기 8강 50 CBS 교회소식 (999회)	00 C채널 명설교 다시

# EMPOWER EVERY POSSIBILITY

세상의 모든 가능성, 에너지로부터



 LG 에너지솔루션